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2

윤리적 상대주의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요 도덕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먼저 도덕적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도덕적 가치는 객관적인 진실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윤리적 상대주의로 알려진 이 관점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객관주의적 성격을 지닌 주요 도덕 이론을 살펴보거나 도덕적 진실의 현실성을 긍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임스 레이첼의 *윤리 에 관한 현대 고전 책인 도덕 철학의 요소* 에서 가져온 자료의 도움을 받아 윤리적 상대주의를 살펴볼 것입니다 . 이 책은 실제로 철학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9판이나 10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교실과 대학 윤리 과정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공화국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책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저는 Rachel의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Rachel 자신이 무신론자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 그는 5년, 1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도덕적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상대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압도적 다수의 철학자들은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라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절대적인 도덕적 진실을 믿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철학자와 윤리학 박사들 사이에 상대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무신론자들이 이 관점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윤리적 상대주의와 그 타당성에 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윤리적 상대주의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상대주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관점입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대적인 가치는 많이 있습니다. 특정 문화와 전통의 옳고 그름 등에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상대주의는 모든 가치가 문화나 개인의 선호도에 완전히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 다양한 종류의 상대주의 사이에는 중요한 두 가지 구별이 있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자와 도덕적 주관주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은 도덕적 가치는 항상 문화와 전통 또는 풍습과 관습에 의해 정의된다고 말합니다. 도덕적 주관주의자는 각 개인을 상대화하고, 주어진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개인의 선호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문화적 상대주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관점은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문화 인류학에서 이루어진 발전으로 인해 실제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Sumner와 Benedict, Ruth Benedict와 같은 학자들은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 집단을 면밀히 연구했고,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북미나 미국에서 우리가 지닌 관행과 가치관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결혼과 살인에 대한 우리의 견해, 자녀를 대하는 방식과 같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옳고 관찮은 행동 방식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중 일부는 다른 문화권에는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는데, 흠, 여기에는 절대적인 진실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도덕 이론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X가 좋다 또는 X가 나쁘거나 틀렸다는 진술을 어떻게 정의하거나 해석할지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형이상학이라는 것을 탐구합니다. 형이상학은 도덕적 용어, 개념 및 진술의 논리와 의미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문화적 상대주의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각 이론에 대한 형이상학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정의롭거나 부당하다고 부를 때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문화적 상대주의자는 X가 좋다는 진술은 X가 이 문화의 관습과 일치하거나 부합한다면

우리가 무언가가 나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그것이 이 문화의 관습이나 받아들여지고 선호하는 행동 방식과 모순된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에게 식탁에서 트림을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제 아이에게 식탁에서 트림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러지 마. 나쁜 짓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당신이 테이블에서 게으르거나 테이블에서 가스 방귀를 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우 무례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쁘거나 나쁘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 선호도로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화권에서는 트림을 하는 것이 좋은 식사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확실히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장과 춤의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술적 스타일이죠. 교통법의 관점에서 사물을 설정하는 방식. 대중 행동의 모든 종류의 작은 세부 사항은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그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문화권에서 행해지는 특정한 히치하이킹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죠.

내가 히치하이커인 것은 아니지만, 히치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도로변에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예전만큼 널리 행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려. 몇 년 전에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는 걸 알게 됐어. 왜? 기본적으로 섹스를 권유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 이유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린 제스처는 저속해.

그러니까, 거기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저는 글썄요 , 그럼 어떻게 승차를 하나요? 운전자에게 어딘가에 승차하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그들은 글썄요,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검지손가락을 가져다가 아래를 가리키세요.

유럽에서 히치하이킹을 해야 할 때 알아두면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인간 행동 영역에 적용되는 상대성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인간 행동이 문화적으로 상대적일까요? 모든 것이 식탁에서 트림을 하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면 히치하이킹을 위한 손짓일까요? 모든 것이 문화적 선호도의 문제일까요? 문화 상대주의자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도덕적 절대주의자나 객관주의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사실인 특정한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하든 절대적으로 틀린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하든 절대적으로 좋고 옳은 특정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글썄요, 우선 주장을 고려해 봅시다. 문화 상대주의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주장입니다. 레이첼은 그것을 문화적 차이 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자를 만나서 그들의 견해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왜 그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큼니다. 문화적 차이 주장의 어떤 버전은 먼저 다른 문화는 다른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마다 다양한 도덕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들은 바로 거기서 도덕성에는 객관적인 진실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질문으로 표현됩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당신과 매우 다르게 살 때, 어떻게 단 하나의 올바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소크라테스적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질문의 형태로 주장을 제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성적으로 행동하는 올바른 방법이 하나뿐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그 상황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또는 낙태 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 단 하나입니까? 등등. 따라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신념과 가치의 다양성에서 특정 도덕적 문제에 관해서는 올바르거나 참된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 주장은 매우 기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원성이 상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다원성이 진정한 견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단일한 진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문학을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의 역사에서, 고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평한 지구 이론으로, 지구가 평평하고 물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무엇 위에 놓여 있습니까? 지구는 무엇이고,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아시다시피, 평평한 지구론자들이 제안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은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견지해 온 입장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지구 중심설로, 지구가 우주에 떠다니며 태양과 여러 행성, 별에 의해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제가 견지하고 아마 여러분도 견지할 관점으로, 태양 중심설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여러 행성 중 하나라는 관점입니다 . 그리고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태양 중심론자 이자 지구 중심론자 가 될 수 없고 , 평평한 지구와 지구 중심론을 동시에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심지어 이 문화권에서도 지구 중심설을 주장 하는 사람 과 평평한 지구론자가 있습니다. 사실, 평평한 지구 이론이 약간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제로 평평한 지구 이론가인 몇몇 저명한 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있습니다.

범퍼 스티커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평평해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쓰인 범퍼 스티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매우 지적이고, 심지어 잘 알려진 사람들 중에 평평한 지구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문학과 이 모든 천체에 대한 지구의 위치에 관한 문제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평평한 지구론자와 지구 중심론자, 태양 중심론자가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당신은 "음, 저는 이 이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물리학과 천문학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천문학과 우주론의 전문가인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사실이며 태양 중심설이 사실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압도적으로 만장일치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평평한 지구론자들과 지구 중심론자들에 대한 모든 존경을 표하지만, 그들의 견해를 반박하는 좋은 이유와 증거에 근거한 문제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문학에 대해 그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의 진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기서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하고, 문화 상대주의자들이 반발하고 윤리학에서 다양한 견해가 진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문학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글썄요, 문화 상대주의자들이 과학과 달리 객관적인 진실과 도덕성을 결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전제를 추가하여 주장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천문학, 생물학, 화학 등에 대한 진실을 결정할 자원, 기술, 과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진실과 도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주장을 좀 더 확장하고 강화한 버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과학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과 윤리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지 않나요 ?

아마도 그들이 옳을 것이다. 아마도 과학에서처럼 도덕적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글썄, 문화적 차이 주장의 이 개선된 버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그 주장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당한 논증은 전제가 결론의 진실을 함축하는 논증입니다.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 논증의 정의입니다.

차이에 대한 주장에 관해서는, 심지어 이 개정판에서도 결론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만약 우리가 다른 문화가 다른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고, 객관적인 진실과 도덕성을 결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고, 논쟁을 위해 인정한다면, 도덕성에는 객관적인 진실이 없다는 결론이 따르나요? 글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 7세기나 12세기에,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에 대한 천문학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강력한 망원경이 없었고, 근대 초까지는 충분히 강력한 망원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탐사하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년 전에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만 해도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에 대한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태양을 공전하고, 다른 모든 행성들도 공전하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사실이 아니었나요? 글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과학에서, 그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 여전히 객관적인 진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구별입니다.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덕적 진실을 확인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 인간 경험,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신으로부터 온 특별 계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성경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본문은 특히 윤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신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를 인도하며, 현실의 궁극적 본질, 신의 본질, 역사적 진실에 대한 형이상학적 진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구약과 신약의 도움을 받고, 이성과 경험을 그 본문에 신중하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 상대주의자의 가장 좋은 주장인 문화적 차이 주장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상대주의와 그것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더욱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매우 문제가 되는 결과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문화 상대주의자인 무신론 철학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그의 고전적 작품인 순수 기독교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아무도 실제로 문화적 상대주의자나 어떤 종류의 상대주의자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하는 동안 상대주의자는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죠? 당신은 어떤 종류의 도덕적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저 조용히 혼자일지라도요.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 그는 나를 차단했어. 그건 잘못된 일이야.

아니면 우리는 멀리 떨어진 다른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와, 그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끔찍해. 부당해.

그건 인권 침해죠? 심지어 강경한 무신론자도 가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상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덕적 절대성을 믿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거부하는 철학적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다른 사회의 가치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문화적 상대주의자라면, 나치가 한 일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문화에서 어떤 집단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입니다. 문화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옳고 그름은 특정 문화의 선호하는 가치에 의해 정의됩니다.

저는 21세기의 미국 문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70~80년 전 나치가 한 일을 판단할 자격이 있나요? 문화 상대주의자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나치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정권이 저지른 가장 피에 굶주리고 대량 학살적인 행위조차 비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덕적 진보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문화적 상대주의자라면 도덕적으로 진보나 퇴보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문화 밖에 우리 문화를 초월하는 어떤 종류의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우리는 우리 문화의 가치의 상대적 장점, 개선 또는 퇴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진보의 전체 개념은 도덕적 선함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절대적인 초월적 기준을 전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적 상대주의의 추가적 함의가 있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모든 도덕 개혁가가 부패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 마틴 루터 킹과 같은 도덕 개혁가들은 현재 문화적 관습과 가치의 특정 측면에 도전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인종 차별적이었기 때문에 짐 크로우 법에 올바르게 도전했습니다.

그 법률들이 이 문화권에서 지배적인 일부 관습과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그 법률들에 반대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항의했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훌륭한 도덕 개혁가로 여깁니다.

하지만 문화적 상대주의가 사실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행동이나 도덕 개혁가를 평가하는 데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준이 현재의 문화적 가치라면, 정의상 마틴 루터 킹이 한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문화적 관습에 도전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훌륭한 도덕 개혁가이자 심지어 도덕적 영웅이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도덕적 절대성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그의 글과 연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더 높은 도덕법이 있으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존재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는 현재의 법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우리가 짐 크로우 법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덕적 영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덕적 절대성을 믿고 문화적 상대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부조리 주장을 일종의 축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치가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도덕 개혁가가 부패한 것은 아니며, 도덕적 진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모든 함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치는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도덕적 진보는 가능 하지만 모든 도덕적 개혁가가 부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적 상대주의가 사실이라는 가정은 거짓이어야 합니다. 부조리나 거짓을 암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거짓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일종의 *reductio ad absurdum* 주장이에요. 좋아요,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다른 형태의 상대주의, 즉 도덕적 주관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적 상대주의의 문제 중 하나는 한 문화가 시작되고 다른 문화가 끝나는 시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문화가 다른 문화로 사라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미국 문화와 대조적으로 유럽 문화나 프랑스 문화, 독일 문화나 스웨덴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 문화나 국가 내에는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텍사스로 여행을 갔는데, 인디애나와는 약간 다른 하위 문화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동부 해안, 그리고 이 모든 다른 주를 다녀봤습니다. 하위 문화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인디애나에 살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북부와 인디애나 남부는 약간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인디애나 남부는 켄터키와 조금 더 비슷하고, 인디애나 북부는 미시간과 조금 더 비슷합니다.

선 그리기는 불가능하거나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려 있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엄청난 과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당신이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명확한 선은 개인들 사이에 있는 듯합니다. 내가 끝나고 당신이 시작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결합 쌍둥이의 문제를 제쳐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을 구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인은 한 신체가 시작되고 다른 신체가 끝나는 곳에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는 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주관주의자는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각 개인은 그들만의 특별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나는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도덕적 진실에 대한 가장 좋은 분석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도덕적 주관주의자에 따르면 X는 좋은 것인데, 이는 내가 X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는 나쁜 것인데, 이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확실히 우리가 음식에 관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말한다, 아, 브뤼셀 콜은 나쁘다 . 아이스크림은 좋다. 무슨 말인가? 글썄, 나는 브뤼셀 콜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이제 브뤼셀 콩나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글썄요, 그들에게 좋다고 말해요.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에게서 나쁘다. 그래서 도덕적 주관주의자는 그것이 도덕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나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매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주관주의의 장점 중 하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꽤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락사, 전쟁, 사형, 낙태. 그 특정 질문에서 옳고 그름은 무엇입니까? 그냥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이유로 한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는 아이디어를 좋아합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요구에 따른 낙태.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물론입니다. 좋아요. 그럼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그것을 좋아할까?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주관주의자들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괴롭히는 특정 문제들을 극복하지만, 남아 있는 특정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것이 도덕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에 대한 근거나 토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그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에게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의무에 대한 어떤 가능한 기초나 근거가 있을까요? 도덕적 주관주의의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도덕적 불일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덕적 판단과 음식에 대한 취향 판단 사이에 평행선이 있다면, 브뤼셀 콩나물 의 맛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윤리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브뤼셀 콩나물 의 맛을 좋아하지만 , 저는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브뤼셀 콩나물이 맛있냐 아니냐에 대해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단지 취향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관주의자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도덕적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도덕적 토론이 터무니없고 무의미하며 시간 낭비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문제일 뿐인데 왜요 ? 공장식 농장 동물을 키우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해 토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과 같고 브뤼셀 콩나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주관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적인 도덕적 불일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여기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견해에 문제가 있는 함축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상식은 윤리에서 진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의견 불일치는 진짜이며 토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덕적 주관주의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관점의 또 다른 터무니없는 의미는 주관주의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선호도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나치 홀로코스트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어디에서든 일어나는 모든 집단 학살 행위가 포함됩니다. 아기를 고문하거나 강간하고 살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에 질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한다면, 주관주의자로서, 글썄요, 그러면 그게 그들에게 맞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 부조리가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주관주의의 두 번째 터무니없는 함의는 우리가 도덕적 판단에 대해 착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관주의가 사실이라면,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접촉하고 자신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한, 당신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도덕적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착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도덕적 상식과 모순됩니다. 저는 한때 낙태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수년 전,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선택의 자유를 지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제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낙태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생명권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도덕적 상식은 내 관점이 틀렸고, 그런 다음 내 관점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꾸었거나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올바른 관점을 가졌을지 몰라도, 지금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정 관점은 내가 전에 틀렸거나 지금 틀렸다는 것을 이해하면, 주관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일 관점을 바꾸더라도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수일마다 생명권 옹호자이고 짝수일마다 선택권 옹호자라고 하더라도, 그 날마다 그게 당신의 선호 사항이라면, 당신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일이 터무니없는 일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판단에 대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도덕적 주관주의를 반박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주관주의는 실제로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이 문제가 있고, 어쩌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두 가지 형태, 문화적 상대주의와 도덕적

주관주의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이제 우리는 그 두 가지 상대주의적 견해를 반박했습니다.

상대주의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으므로, 우리는 가능하다면 우리의 모든 이 문제에 대한 도덕적 직관을 이해하고, 의무와 권리, 정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절한 기초를 제공하고, 도덕적 불일치가 현실이라는 우리의 직관과 상식적 믿음을 이해하고, 또한 만족스러운 이론을 통해 때때로 외국 문화나 집단, 정권, 외국 문화가 그들의 견해가 문화 내에서 지배적인 견해일 때에도 부도덕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성에 대한 이러한 모든 상식적 믿음을 설명할 도덕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할 주요 도덕 이론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